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강림 대 축일
제35권 26호(나해)2015년 5월 24일

[묵상]

성령강림 대축일

성령의 모습

첫째 "거센 바람"같이 나타나셨다
바람이라는 존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위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성령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그 작용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외침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꽃모양" 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렸다는 것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녹이는 강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불길처럼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악과 불의를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

셋째 "혀들이"나타났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를 소통**시키는 언어의 중추적 역할.
즉 성령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달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골고루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굳어있는 혀가 풀려서
하느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을 가지신 분

-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 요 일	새 벽 미 사	오전 6:30
화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울뜨레아(4째주)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오전 9:30
	소년 레지오 마리애	오후 4: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토 요 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배론청년회 모임	특전미사후
주 일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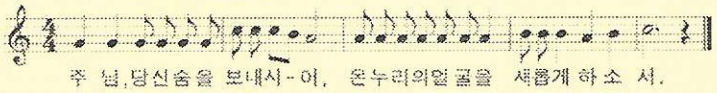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중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 김소연 프란체스카 & 박수현 마리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필주 바오로, 변혜경 율리안나, 전시웅 요한,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생)서성용 베드로, 토런스 북구역원 가정, 엄정자 분다, 정린다 젬마& 정엘리스 클라라, 최태훈 아오스딩, 서재원 요한& 서옥분 마리아, 오창근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 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코린도1서(Corinthians) 12,3ㄷ-7.12-13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요한(John)20,19-23<또는15,26-27;16,12-15>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이스라엘의 유능한 지도자 여호수아 [성경산책]

하느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국가를 세운 이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무척 신임하고 일찍부터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전쟁에서 공로를 쌓게 했고, 시나이 산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장면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신명 31,1-8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통수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은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없는 공백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세를 대신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계약의 궤를 앞장세우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요르단 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여호2,1-24;3,1-17

여호수아의 힘과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극복하고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고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길 것을 부탁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여호23,1-16; 24,1-33

여호수아는 슬기로운 유능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투철한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힘과 용기는 인간적인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하느님이 내려준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명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여호1,1-9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　)에게 명령 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신명 34,9)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과 (　　)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이 너와 (　　)주겠다." (여호1,9)

◆ 허영업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십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2 참조)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창세 2,7 참조)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인간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는 유혹에 빠진 인간은 성령을 잃어버린 채 서로 증오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죽어갑니다. 성령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언했습니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에제 36,26;37,5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충실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맨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려는 욕심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을 온몸으로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모두들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혼자 살아가면서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우울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더불어 살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수욱 신부 / 대방동성당 주임

욕망보다 소망

예쁜 집을 갖고 싶은 건
집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사는 시간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건
사람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빚어낼 이야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탐욕과 집착으로 보이는 건
집에 가려 사람이 더디 보이고
이야기는 사람보다 숨어있는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영 아네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5	315	317
봉헌	423	261	261
성체	401	291	291
파견	418	324	312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엄영숙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중철 아브라함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시다

◈ 오늘(5월24일)은'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 제12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선수들과 응원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그리고 행사 진행 을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13일부터 등록비 인상 ($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학기 준비를 위하여 학생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가능한 한 1차 접수 부탁 드립니다.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올해 첫 영성체 대상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오늘주일(24일) 일요일 10시30분
- 장소: 교사실

◈ 오늘 주일 (24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26일(화) 휴무입니다.**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 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제목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29일(금) 오후 7시 30분
- 준비 : 개인이 봉헌하실 초는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초 판매 $2.00
- 29일, 금요일 오전미사는 없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24일(주일) *Memorial Day : 친교 자리 없음
  * 주일학교 : 주일학교 수업 없음
- 5월31일(주일) *토런스 남 1,2반 소고기무국($3)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5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경철호 권태만 김광자 김대우 김옥찬 김은학 박완철 박운모 반정이 신순철 양영란 오강님 오일환 이귀분 이민상 이병우 이재철 이종선 이효세 임 순 정인욱 조소영 최기호 최의수 홍광선 황인종 한길선례 합계:$2,855	성전헌금	경철호 권태만 김광자 김대우 신순철 양영란 이귀분 이민상 이병우 이효세 임 순 최기호 홍광선 황인종 한길선례 합계 : $1,585
주일미사 헌금 : $2,145	주일학교 수표교환 $40	성당사용료: $500	

◈한국학교소식

- 학기말 시험 (6월 07일) - 시상 : 6월 14일 종강식
- 2014~15년도 종업식:6월 14일(1:30 ~ 3:00 pm)
- 2015-16년도 새 학기 등록

  기간 - 5월 31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시간 - 10:30 am ~ 12:00 pm

  * 6월 14일 까지 등록 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수강 신청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시간 : 0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남가주 소식

◈LA 대교구 강주원 가브리엘, 송용주 시메온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 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0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31일(주일)오후5시성 그레고리 한인성당
  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31일(주일) 성 라파엘성당 12366Rosecrans Av. Norwalk
  리셉션 12:00 미사 후 라파엘 홀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 봉사자 모집

- 자격:나이제한 없음, 열정적이고 성실한 가톨릭 신자 분.
- 모집분야: 방송을 진행해 주실 MC분들,
  웹사이트 관리, 전화서비스, 홍보, 사진, 사무정리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쉼표"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9th~12th)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fiat.org (714)702-9830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데오도시오 780-325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프란체스카617-113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5/15(금) 오전11시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5/8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503-927-0770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124위 시복특집<27> 홍재영 프로타시오 (1780~1840년)

... 홍재영은 근본이 흉악한 종자로서 대대로 천주교를 신봉해 왔으며, 선교사를 청해 올 때에 힘을 기울였고, 천주교 서적을 베낀 것이 110여 권에 이르며, 수십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숨겨 주었다. 이처럼 죄악이 으뜸이 되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 사형 선고문 중에서 -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1801년에 순교한 홍낙민 루카의 아들이자, 1866년에 순교한 홍봉주 토마스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부친에게서 교리를 배운 그는 장성한 후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신앙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1801년의 신유박해 때 배교하고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한동안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총의 힘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한 그는 이때부터 열심을 배가함으로써 지난날의 잘못을 보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 앞에 꿇어 기도했으며, 한 주에 금식 재를 세 차례 지키며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열심히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1832년 유배자 들에게 전면적인 사면령이 내리자, 광주관장은 홍재영을 불러 마음을 바로 고쳤느냐고 물었습니다. 홍재영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귀양살이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다 늙었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린단 말이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냐?" 이후 여러 날 동안 회유와 위협이 반복되었지만 어떤 수단도 소용이 없었으므로 홍재영은 그 후로도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자 홍재영은 순교자들의 뒤를 따름으로써 이전에 잃었던 기회를 다시 찾겠다는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많은 교우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갈 곳 모르는 4명의 여인을 제집에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6월14일에 전주에서 온 포교들이 그와 온 가족과 여러 명의 여 교우 들을 체포했습니다. 첫 번 신문이 끝난 다음 홍재영은 전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떠날 때 읍내의 주민들 3~4백 명이 그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벌한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슬피 울었습니다. 홍재영은 그들을 위로하며 이 길이 자기에게는 영광의 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9월 15일 전주관장은 옥에 갇힌 그를 불러내어 다시 유혹했으나 소용이 없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히 금하는 종파의 교인일 뿐 아니라 집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니, 너를 극형에 처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에 홍재영이 답했습니다. "국법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홍재영은 관례에 따라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혀 사형 집행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0년 1월 4일, 60세의 나이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교리상식]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 하느님 아버지(성부)가 이루시는 모든 일마다 예수님(성자)과 성령은 함께하십니다.

성부, 성자,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의 실체(實體)안에 세 위격(位格)으로 계시기에,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가 잘 걷도록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하느님이 당신 안에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에게 들어 올리는 열정적인 생각들을 환영하십시오.
당신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